

[넷플릭스] 벨라 바자리아 최고콘텐츠책임자 퇴사, 후임 미정 - 콘텐츠 다변화 전략의 연속성에 변수



26.10.16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핵심 요약

- 벨라 바자리아 CCO 퇴사, 후임·사유 미공개
- 손익·가이드라인 직접 영향 없으나 콘텐츠 전략 연속성 변수
- 성장 둔화·밸류 할인 국면 맞물려 투자자 민감도 높을 수 있음

넷플릭스가 15 일(현지시간) 성명을 통해 벨라 바자리아 최고콘텐츠책임자(CCO, 영화·시리즈·예능 등 콘텐츠 전반을 총괄하는 임원)가 회사를 떠난다고 공식 발표했다. 후임 인선이나 교체 사유, 이양 일정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.

이번 교체가 손익에 즉시 반영될 사안은 아니다. 2 분기 매출 125.6 억 달러(전년 대비 13.4% 증가), 영업마진 33.4%로 집계된 최근 실적과 연간 영업마진 목표 31.5%는 이번 발표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되고, 3 분기 가이드라인(매출 128.6 억 달러, 주당순이익 0.82 달러)도 수정될 사안이 아니다. 다만 시점은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. 넷플릭스는 비디오 패키지, 크리에이터 콘텐츠, 클라우드 게임, TF1 제휴 등으로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넓혀온 국면에 있었고, 콘텐츠 총괄 책임자의 교체가 그 흐름의 연속성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. 다만 이는 후임자 역량과 전략 승계 방식에 달린 문제로, 지금 단계에서 전략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.

문제는 타이밍이다. 매출 성장률이 네 분기 연속 둔화하고(17.6%→16.2%→13.4%→3 분기 가이드 11.7%) 밸류에이션 할인이 깊어진 국면에서 나온 리더십 변화라는 점에서, 투자자들은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. 다만 이것이 실적 가이드라인이나 수익성 궤도를 직접 건드리는 이벤트는 아니라는 점에서, 주가에 추가로 가해지는 하방 압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.

앞으로는 후임 CCO 인선 발표 시점과 그 인물이 광고 매출 확대, 콘텐츠 다변화 같은 기존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는지, 아니면 편성·투자 우선순위에 변화를 주는지를 지켜봐야 한다. 그 결과가 향후 콘텐츠 슬레이트와 가입자 인게이지먼트 지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음 분기 이후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.



재무 요약 (I/B/E/S 컨센서스)

항목	FY Dec-24	FY Dec-25	FY Dec-26 (E)	FY Dec-27 (E)	FY Dec-28 (E)
매출 (Revenue)	39.00	45.18	51.23	56.98	62.75
↘ 증가율	15.65%	15.85%	13.39%	11.22%	10.13%
매출총이익	17.96	21.91	26.01	29.53	33.32
↘ 마진	46.06%	48.49%	50.77%	51.82%	53.09%
EBITDA	10.75	14.03	17.09	19.97	23.00
↘ 마진	27.55%	31.05%	33.35%	35.05%	36.66%
영업이익 (EBIT)	10.42	13.33	16.15	19.09	22.12
↘ 마진	26.71%	29.49%	31.53%	33.50%	35.26%
순이익	8.71	10.98	15.21	15.73	18.33
↘ 마진	22.34%	24.30%	29.69%	27.60%	29.21%
EPS	1.98	2.53	3.58	3.81	4.55
↘ 증가율	64.84%	27.58%	41.51%	6.33%	19.63%
잉여현금흐름 (FCF)	6.92	9.46	12.87	14.28	17.09
P/E	44.9x	37.1x	19.7x	18.5x	15.5x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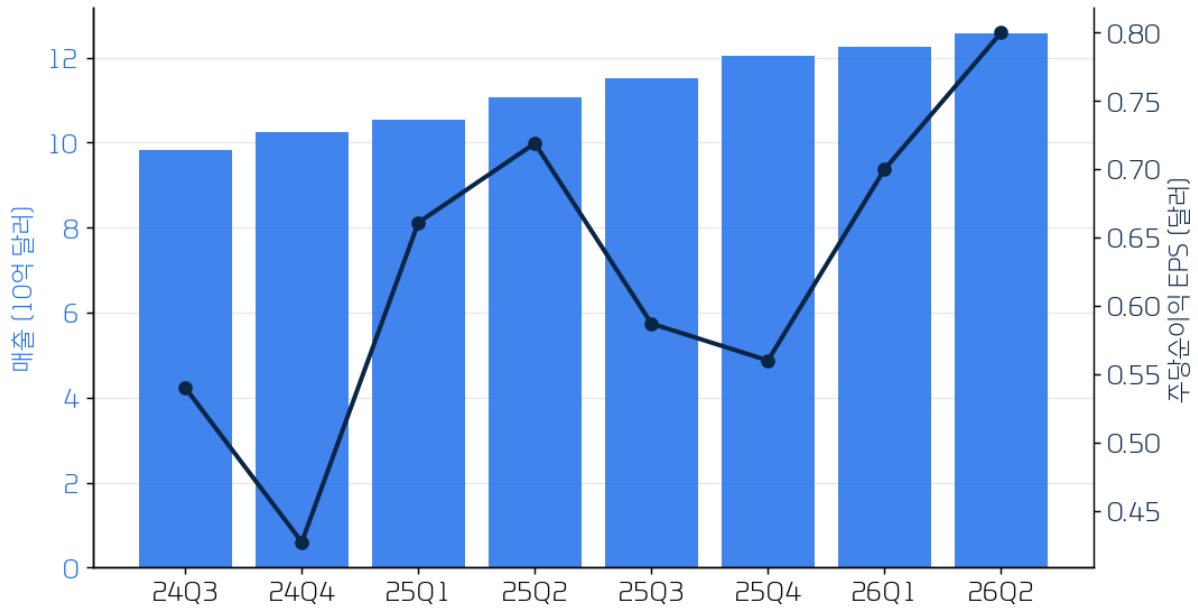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YoY, 단위는 십억 USD

참고 차트

NFLX 주가·12개월 선행 EPS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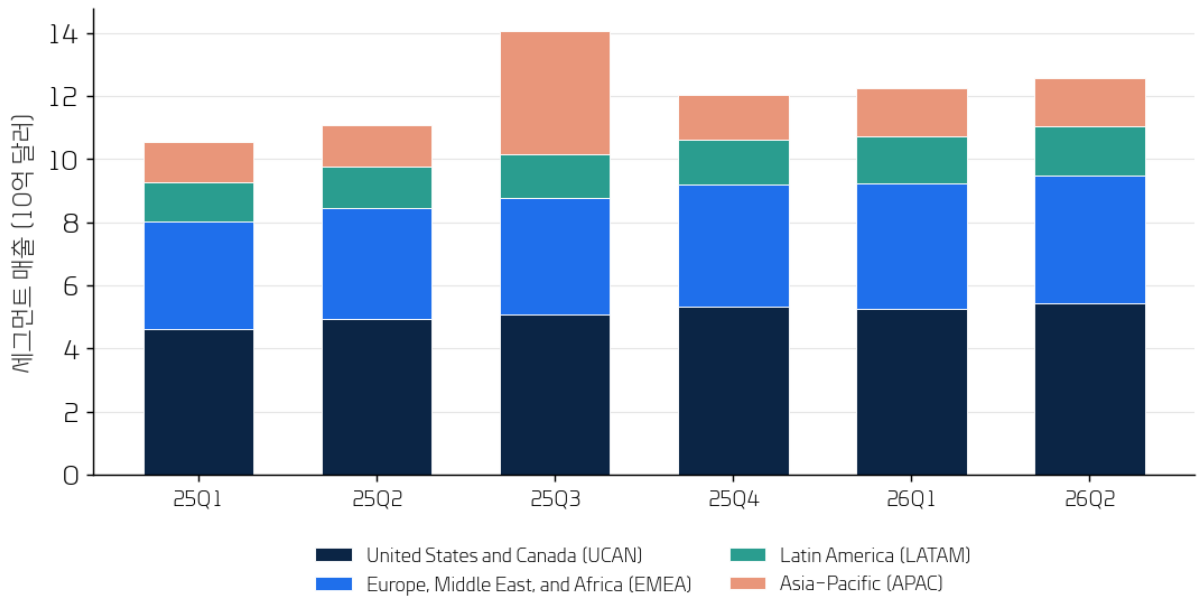


NFLX 분기 매출·주당순이익(EPS) 과거실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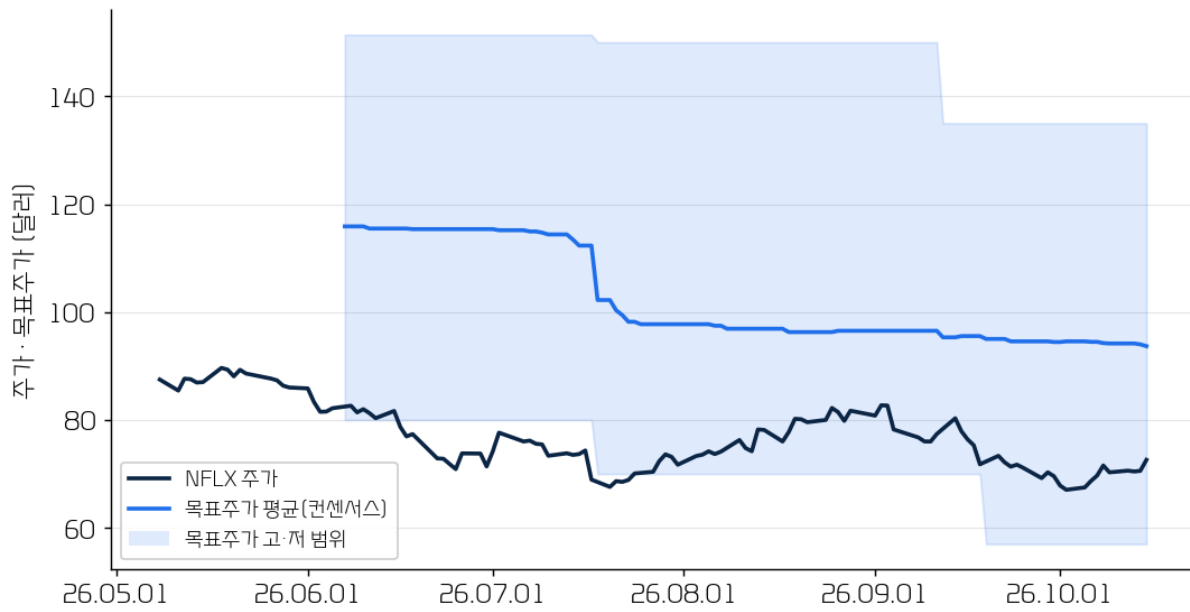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NFLX 세그먼트 매출 구성(사업부/지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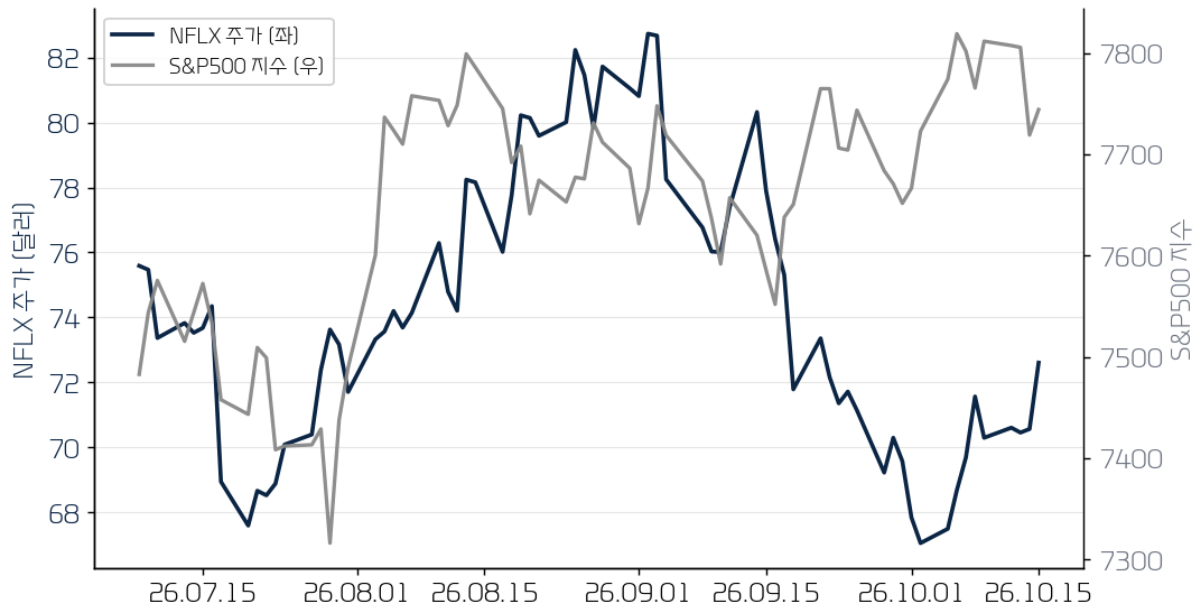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NFLX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NFLX 주가 vs S&P500 (최근 90 일)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-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 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 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
-